

⊕ 공지사항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교구 성체행렬 및 기도신청

- 일시: 11월 20일(주일) 피트 스트리트 와 마틴플레이스 코너, 오후 2시 출발
- 11월 20일(주일) 성체행렬시 모든 참석자들은 기도 대상자들을 지향에 두고 기도하면서 행렬을 합니다. 성체행렬 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성체거동행렬 Pray Book (본당앞 주보대에 비치)
- **집합장소: 윈아드역 또는 마틴플레이스 역 하차, 마틴플레이스 ANZ은행 앞 광장**

사목회의

- 일시: 11월 20일(주일) 성체거동 행렬 후 오후 5시
- 장소: 미카엘방

델린다 수녀님 휴가

- 11월 23일(수) - 25일(금)

유아세례 일정

- 2차 부모교육: 11월 23일(수)
- 3차 부모교육: 12월 7일(수)
- 유아 세례식: 12월 17일(토) 오후 2시

2017년 은빛대학 입학원서 접수

- 기간: 2016년 11월 27일 - 12월 4일
- 학비: \$100
- 선착순: 180명, 70세 이상 (47년생)
- 연락처: 최은선 비비안나 (0405 593 991)- 손기선 루시아 (0450 338 008)

구역장/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

- 11월 27일(주일) 교종미사후 12시 30분부터

2016 초등부 은총나라

- 날짜: 12월 3일 토요일
- 시간: 오후 12:30 ~ 오후 3:30
- 장소: 본당 주차장 및 교육관
- 주제: 은총시대
- 문의: 김주혜 요셉피나 0433 021 533
- 조예진 크리스티나 0430 164 554

2017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캠프

- 장소: Camp Toukley, Canton Beach
- 날짜: 2017년 1월 6~8일 (Fri-Sun)
- 참가대상: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7~11학년)
- 참가인원: 선착순 100명
- 참가비: \$130
- 접수 기간: 11월 19일&26일, 12월 3일 5:30학생미사후
- 문의 사항시 연락처: 이재준 안드레아 (캠프장) - 0401 548 808

2017 교무금 신립

- 11월 27일 (대림1주) 부터

대림 판공성사표 배부 및 판공 일정

- 판공 성사표 배부: 구역장/반장님께 수령

판공일정	판공구역
12월 14일(수)	9, 10, 11,12구역
12월 15일(목)	5, 6, 7, 8구역
12월 16일(금)	1, 2, 3, 4구역

단체모임

- 11월 20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연령회
- 11월 24일(목) 성령봉사회
- 11월 25일(금) 방송실, 청소년분과
- 11월 26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11월 27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12월 3일(토) 성모회
- 12월 4일(주일) 전례분과, 홀리 패밀리

제9차 탈출기 연수 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 11월 5일(토) ~ 20일(주일)
- 대상 : 탈출기 연수를 마친 청년
- 문의 : 0423 741 301(대표 봉사자)

대림초 판매

- 성물방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가격: \$12

“샘” 열린기도회 공지 및 신입단원 모집

- 이번주 기도회 주제성구: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루카 18,41)
- 또한 샘단원을 모집중이니 관심있으신 청년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433 998 728

시드니 가톨릭청년 캠프 안내

- 주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41,13)'
- 날짜: 12월 09일(금) 17:30 ~ 11일(주일) 17:30
- 장소: Camp Kedron(Ingleside)
- 인원: 선착순 85명 / 참가비: \$80
- 참가신청: 실버워터 & 시티 청년미사 후(11월)
- 문의 : 0411 617 307(캠프장), 0431 695 322(청년회장)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1월 27일) 차량봉사 하시는 양재봉 다니엘 한진수 바오로 신동익 바오로 이태우 아오스딩 원광현 마르코 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과 봉사에 대한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11월 7일 - 11월 13일)

구분	신립수	신립 금액	납부 금액 (개인/가족 신립)	기타 납부금액 (단체/익명/감사헌금)
금주	-	\$-	\$3,730	\$14,530
누계	643	\$755,500	\$566,349	\$101,410

단체: 감사헌금: \$180, 익명: \$50, 본당의날 경매: \$14,300

주일 봉사	■ 20/11 9구역 ■ 27/11월, 4/12 10구역 ■ 11, 18/12 11구역 ■ 25/12, 1/1 1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업무집치 국수 (3구역)
----------	--	------------------

사무실 업무시간 안내	봉헌금	교무금	기타	미사 참례수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8:00 - 15:00 / 18:30 - 21:30	\$2,110.30	\$19,087.45	\$-	2,106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2 (노 미카엘 신부), 8756 3331 (이 스테파노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 필로메나 원장수녀, 강 마리안나 수녀, 이 델린다 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 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 스테파노)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2016. 11. 20(다해) / 제121호



시드니 가톨릭 주보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노호영 미카엘, 이남웅 스테파노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정화 필로메나, 강형숙 마리안나, 이정화 델린다
사목회장: 최병훈 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활발한 공동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선교로 나가는 공동체를
건설 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종)

5:3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641 George St Sydney

⊕ 평신도 사도직 - 40주년 행사를 마치고



저는 매년 평신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한번쯤 꼭 들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서 6번에 걸쳐 강조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내려주신 신성한 사명이자 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이 말이 지닌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며 또 실제 실행하고 있습니까?

평신도의 사제직은 우리가 평신도로서 일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삶을 하느님께 바치며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가정과 일터 혹은 삶의 곳곳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때 우리는 평신도의 사제직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직이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시행된 새신자찾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제 선교활동에 나섬으로써 이 예언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교회정신에 어긋나고 불의한 일에는 과감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참된 예언직의 직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직이란 그리스도께서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편이 가장 낮은 곳에 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고통과 허물을 이들이 대신받고 있다고 여기며, 이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왕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지난 1년반에 걸쳐 지내온 40주년이 구호나 행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어 실제 우리를 평신도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다짐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구체적으로 평신도의 직분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본당 설립 40주년의 모든 행사와 신심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단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숭한 고비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6년 11월 7일 척박한 미국땅에서 몇몇 가족이 모여 첫 한국어 미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 공동체가 40년만에 오늘의 성대한 교회가 된 것의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기복과 폭풍의 시기가 있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거쳐오면서의 현재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 하느님 백성의 교회가 되기까지에는 우리 선배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와 기도와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이 함께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갈등끝에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 40세때를 문득 연상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때가 제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한국에서 30대 중반까지 전문의로서 세상에 두렵고 아쉬울 것 없이 지내다가, 이민와서 몇년간 낯설은 문화와 언어에 고생하면서 간신히 적응하여 맞이한 저의 40년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으며, 이때부터 모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나아 갈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의 40대 초반을 떠올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랑과 일치의 교회의 힘찬 시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책무 즉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 오늘 하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삶속에서 깊이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훈훈한 향기로 피어나기를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3면 하단 계속)

⊕ 전례성가 / 화답송

그림 : 충직한 종 - 김옥순 수녀님 작

최병훈 요셉

전례성가: 입당: 73 봉헌: 217, 210 성체: 174, 166, 168 파견: 75

제 1독서: 2사무 5,1-3 제 2독서: 콜로 1,12-20 복음: 루카 23,35ㄴ-43

화답송: 
기 뻐 - 하 며 주 - 님 의 집 - 으 로 가 리 - 라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공동체 소식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13일(주일) 교중 미사 후 기념관에서 준비한 율동, 라디오극, 골든벨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ME 야외 웨빙 및 야유회



13일(주일) 올림픽 공원에서 ME 야외 웨빙 및 야유회가 있었다.

12학년 대상 아미쿠스 청년회 오리엔테이션



12일(토) HSC를 마친 12학년을 대상으로 아미쿠스 청년회 단체 및 활동 소개를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가톨릭 상식 - 가톨릭 상징례

사십구재(四十九齋), 가톨릭 정신에 맞는가?

사십구재는 불교에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천도 의식이다. 불교의 내세관은 극히 착하거나 악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을 받기 때문에 중음(불교의 중간세계)이 없지만, 보통 사람은 49일 동안 중음에 있을 때 다음 생을 받을 연이 정해지므로 좋은 생을 받으려고 7일마다 7 번씩 불경을 외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 가운데도 사후 49일에 탈상의 의미로 위령미사와 위령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유교의 탈상과 불교의 사십구재는 다들뿐더러 가톨릭교회의 죽음 이해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본당에서는 유교의 상징례 규정보다 이른 시기에 탈상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순(50)절 성령강림의 의미로 재해석해 미사와 기도를 바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제(虞祭) 지내도 되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우제는 장사하는 날 지내는 초우, 재우, 삼우를 뜻한다. 본래 가톨릭 장례와 연관이 없는 우제를 상징예식에 수록한 것은 보편교회의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전례헌장」 제 63항에 따라 각 주교회의는 이 로마 예식서에 준하여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게 적응시킨 고유 예식서를 준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장예식은 ‘실제로는 세상을 떠난 이보다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심정은 마찬가지로 사별의 슬픔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세상을 떠난 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복돋우는 때이다.’ 라고 설명한다. 우제가 유교에서 비롯됐지만 그리스도교의 부활, 성인들의 통공, 희망 등의 교리로 재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상장예식은 ‘전통 예식을 따르는 가정에서는 가문의 풍습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음의 예식으로 우제를 지낸다.’ 라고 밝혀 우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월 6일 가톨릭 신문

⊕ 살아 숨쉬는 공동체

연중 제 33 주일(평신도 주일) / 루카 21, 5 - 19

질문

“다 허물어 질 때가 올 것이다.” (6)
▶ 애써 힘들게 이룬 어떤 일이 한 순간에 허물어져 인생을 새롭게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8)
▶ 종말을 이야기하며 건전한 신앙을 흐리게 하는 이단이나 신흥종교에 속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11)
▶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이상기후나 홍수 등 재난을 접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5)
▶ 나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외 성경구절
위 성경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11월 활동토의 (예문)
※ 입교자 돌보기
많은 입교자들이 교리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1면 글 계속

이제 시드니의 한 평범한 교우가 40주년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쓴 시 한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극이 끝난 뒤

연극이 끝나고/무대 곳곳에 남아있는/이 고요함은 무엇입니까/술한 몸부림 끝에 남아있는/외로움입니까

연극이 끝나고/쓸쓸히 떨어진 꽃잎들은/아직도 무대위에 흩어져 있는데/남아 허공을 맴도는 이 마음은/무엇입니까/사랑입니까/

연극이 끝나고/무대위 꽃잎들은 저리 활짝 웃고 있는데/절절한 그리움입니까/그대들을 향한 속삭임입니까/

우리들은 연극이 끝난뒤/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2016년 11월 13일 평신도 주일에

최병훈 요셉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묵상의 씨앗 - 공감하는 공동체



성 디스마스(St. Dismas)는 예수님 오른쪽에 매달렸던 '착한 죄수'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 디스마스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성한 성인은 아니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를 성인으로 공경해왔습니다.

십자가 위의 착한 도둑 - 로베르캉팡 작

좋은책 - 벼랑 끝에서 임을 만나다 (최현희 저)



흔히 삶은 '길'로 표현된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갈림길 앞에서 어려운 선택과 마주친다. 그리하여 인생길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한 길로 모아지기도 하면서 계속 이어진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이룬 후 일상의 소박한 행복에 기뻐하던 글쓴이 역시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 수도 성소의 길을 갈 것인지,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길을 갈 것인지.... 하지만

어렵게 선택한 수도 성소의 길 역시 오래지 않아 끝나고, 다시 또 다른 길 앞에 서고 만다. 인생은 늘 그렇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하지만 혼하지 않은 병까지 얻으면서 그동안 걸어 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던 글쓴이는 어느 길목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모든 여정이, 하느님을 찾아 나선 글쓴이에 대한 그분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또 다른 고백이다.

“극적인 삶의 순간들이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고도 당당하게 달려온 한 인간의 고백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 절망적 삶을 희망으로 끌어낸 한 신앙인의 모습, 세상을 향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들과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관계, 인간에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용훈 주교(천주교 수원교구장)

출처: 성바오로 서원 책 소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KJB 한진운송
최다차량 보유 8대
국내/해외 전문
대표 허요셉
0431 24 24 24
9648 242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Shop1a, 62-74 Beamish St., 캄시
Office, 9787 6633 Mobile, 0413 110 216
이영순 테레사 (Theresa Lee)

삼대 한의원
Oriental Medicine Clinic
불임클리닉 여성클리닉 통증클리닉
보양클리닉(수협생, 어린이, 직장인등) 미용클리닉
9876 2304 / 0481 252 425
Shop 31/74 Rawson St Epping NSW 2121 (주유소 건너편 입구)

RUHENS 루헨스
똑똑하고 예쁜
초 슬림형 정수기
M. 0416 1004 99
T. 9643 9999

SUN FLOWER
FAMILY DAY CARE
정문의 클레어 0414 747 797
77 HARRY AVE LIDCOMBE

TOTAL KITCHEN
부엌가구 • 일반가구 • 인테리어 • 수문제척(공정 식임)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치과
무통증/무절개/빠른회복/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Level 11, 33 York St Sydney (윈아드역 바로앞)
02 9299 8842 ddsaustralia.com

해피라이프 코칭센터
유인상 가브리엘 0452 664 844
국제코치협회/한국코치협회 공인 라이프 코치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드민 법대 학사(LLB)/백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T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53

Wonderful Family daycare
11A Linden Grove, Ermington T. 7900 7939
이거영 영도로드 0412 074 889

유학 이민 MKL SYDNEY
학교 상담
비자 상담
T. 0420 200 303 MKLSydney

DISCOVERY COLLEGE
Year 7 ~ 12
지금 등록하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드리는 혜택
30%ff
discoverycollege.com.au / 1300 30 50 90 / Strathfield Plaza 7층

리드컴왕토방
●왕도(온돌)방
●Self 요가 온돌방
●자전거 운동기구 등
●왕도습식 펌프
문의: 0402 857 942 / 8964 5884
48 Joseph st, Lidcombe 영업시간: 오전9시~ 저녁 9시 30분까지

초이스 틀니치과
원장 최종문 아우구스티노
Suite 7 / 12 Churchill Ave. Strathfield
스트라 필라지아 T. 8386 0143

Miracle Finance
주택용자 • 재용자 • 상업건물 용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IGAGU 아이가구
학생 가구 • 엔틱 가구 • 리바트 가구
• 듀오백 의자 • 학습용 LED 스탠드
18/6-20 Braidwood Street, Strathfield South 02 9742 3220